

*** 김영희 목사님 카톡 메시지(5/14)**

5월 8~13일간 은혜가운데 선교지인 귀주지역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걸음에 그곳 지역 지도자들과의 만남 과 사역현장을 둘러보면서 그곳지역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보게해주시고 앞으로의 목회코치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현재 사역하고있는 지도자들의 훈련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7월부터 현지 지도자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목회자들의 생계유지입니다.
우리학교 졸업생들도 결혼하고 애낳고 생계유지 때문에 타 도시로가서
일하고있어 현지사역을 감당하는 애들이 2명밖에 없구요.
이 두명도 제가 매월 생활비를 보내줘야 살수 있어요.
그곳에 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비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원로 지도자들은 거의 신학을 하지 못한 채 농사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동네 돌아가도 사례비를 줄 생각조차 하지않기에 애들이 거의 다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있는 큰 이유가 말씀을 들은 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현재 일하고 있는 지도자 훈련
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까지 강사들 가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